

# 퇴계학과의 「무이도가<sub>武夷權歌</sub>」 수용과 도산구곡

임노직\*

1. 머리말
2. 퇴계의 「무이도가」 수용 양상
3. 광희 이야순(1755~1831)의 「도산구곡시」
4. 도산구곡 시가 창작의 함의
5. 맺음말

## 1. 머리말

조선조 사림의 학문은 성리학이라는 철학이다. 인간의 삶과 자연의 이법<sub>理法</sub>에 대한 통찰이 그 본질이다. 그 이법은 공리에 의하여 터득하게 되는 것이며 자연을 통하여 깨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산수 자연은 조선조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공간이었다. 무이산<sub>武夷山</sub>은 주희<sub>朱熹</sub>가 만년에 벼슬을 버리고 산수에 은거하면서 경세학적 경향에서 벗어나 순수학문에

---

\* 林魯直, 한국국학진흥원

침잠하던 공간이다. 주희의 삶의 모습은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의 모범이었으며, 그의 문학적 견해는 조선 문단의 도학적 사유의 큰 흐름을 형성하였다. 조선 사림의 정신적인 고향은 주희가 기거했던 무이구곡일 수도 있었다. 그가 지은 「무이도가(武夷權歌)는 조선조 사림들의 구곡시(九曲詩) 창작의 전형이 되었으며,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을 위시한 영남 사람들의 신수관 확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더욱이 「무이도가」의 적극적 수용은 도맥의 흐름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도통의식을 전승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8세기 후반 이이선(李爾愼) 등에 의해 진행된 도산구곡의 설정과 시가(詩歌) 창작은 분명히 퇴계학파의 학문적 계보와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 글의 목적은 퇴계의 「차구곡도가운(次九曲權歌韻)의 시적 형상을 이해하고, 아울러 퇴계의 충실한 계승자이며 「도산구곡(陶山九曲)시가의 창도자라 할 수 있는 광뢰(廣瀨) 이아순(1755~1831)의 「도산구곡」시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고찰하는데 있다.

## 2. 퇴계(退溪)의 「무이도가(武夷權歌) 수용 양상

주희는 54세 때인 1183년 4월에 무이산의 5곡에다 정사를 짓고 이듬해에 「무이도가」를 지어 문학사를 빛나게 하였다.<sup>1)</sup> 주희는 무이산에서 약 7년간(1183~1189) 머물면서 강학과 저술활동에 전념하였다. 「무이도가」 10수는 무이산의 구곡을 따라 명승과 경물의 특색을 묘사하면서 유람의 한가로운 서정을 형상화한 뱃노래이다. 퇴계 등 조선조의 성리학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모작(模作)

---

1) 「武夷權歌」의 原題는 “淳熙甲辰仲春，精舍閑居，戲作武夷權歌十首，呈諸友遊，相與一笑。”이다.

을 하고 와유(畵遊)를 즐겼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곳곳마다 구곡을 지칭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2) 퇴계의 「무이도가(武夷權歌) 회운(和韻)은 한국시가사에서 전통적 맥락을 형성하였다. 당시 김인후(金麟厚, 1510~1560)와 조익(趙翼, 1579~1655) 등은 ‘입도차제(入道次第)’의 조도시(造道詩)로 「무이도가」를 수용했고, 퇴계와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은 ‘인물기흥(因物起興)’의 산수시(山水詩)로 파악했다. 3) 퇴계는 주희가 뜻을 펴지 못하고 무이산에 은거하게 된 것에 대해, 세상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불행이긴 하지만 유학을 위해서는 백대(百代)의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4)

퇴계는 『무이지(武夷志)』를 읽고 주희의 「무이도가(武夷權歌)를 의방해 상상(想像)과 기흥(起興)에 기초하여 「차구곡도가운(次九曲權歌韻) 10수를 지었다. 5) 무이구곡의 차운은 15세기 말엽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퇴계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무이지(武夷志)』를 읽고 「무이도가(武夷權歌)를 차운하여 시를 짓고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를 감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퇴계는 상상 속에서 주자가 은거했던

2) 朱熹, 『朱子大全』. “武夷山上有仙靈, 山下寒流曲曲清. 欲識箇中奇絕處, 權歌聽兩三聲. 一曲溪邊上釣船, 幔亭峯影澗晴川. 虹橋一斷無消息, 萬壑千巖鎖翠煙. 二曲停停玉女峯, 插花臨水爲誰容. 道人不再荒臺夢, 興入前山翠幾重. 三曲君看架壑船, 不知停權幾年. 桑田海水今如許, 泡沫風燈敢自憐. 四曲東西兩石巖, 巖花垂露碧琅玕. 金鷄叫罷無人見, 月滿空山水滿潭. 五曲山高雲氣深, 長時煙雨暗平林. 林間有客無人識, 欸乃聲中萬古心. 六曲蒼屏透碧灣, 茅茨終日掩柴關. 客來倚權巖花落, 猿鳥不驚春意閑. 七曲移船上碧灘, 隱屏仙掌更回看. 人言此處無佳景, 只有石堂空翠寒. [却瀨昨夜峯頭雨, 添得飛泉幾道寒] 八曲風煙勢欲開, 鼓樓巖下水縈迴. 莫言此處無佳景, 自是遊人不上來. 九曲將窮豁豁然, 桑麻雨露見平川. 漁郎更覓桃源路, 除是人間別有天.”

3) 『兩先生往復書』卷1, 「武夷權歌和韻」.

4) 李滉, 『退溪先生文集』卷43, 「李仲久家藏武夷九曲圖跋」.

5) 『武夷志』는宋代 劉黻가撰하고 明대 楊叔及 및 그 아우 乾叔이 증수했으며, 權齋 陳普의 門人인 劉槃은 權歌의 註에 대해 跋을 붙였다. 퇴계가 보았던 權齋詩는 元代의 陳普의 저술로 여겨지는데 무이산지에도 그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무이구곡을 유람하고 그 감회를 주자의 무이도가의 형식을 그대로 계승하여 무이구곡을 읊었다. 다만 퇴계는 『무이지』의 주석처럼 학문 입도의 차제로 파악하지 않고 무이산의 절경과 그 절경을 보고 발한 성정을 읊은 것으로 수용하고 있다. 6) 『퇴계선생문집증보(退溪先生文集增補)』의 주석에 의거하여 퇴계의 「차구곡도가운(次九曲權歌韻)」의 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한다.

仙山의 異靈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오	不是仙山詫異靈
滄洲에서 놀던 자취 맑은 운치 그리워라	滄洲遊跡想餘清
지난 밤 그 꿈에 너무나 감격해서	故能感激前宵夢
九曲의 뱃노래를 한꺼번에 화답하네	一權賡歌九曲聲

서시에서는 퇴계의 무이도가 차운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희의 풍취를 흠모하기 위해서였다. 무이산의 도가적 신비감이 이 시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퇴계는 철저히 주희의 학문적 이론을 조술했으며 그의 인품에 심취했다. 퇴계의 주희에 대한 경모는 꿈 속에서 무이산을 노닐며 뱃노래를 부르며 감격하는 것으로 전이된다. 이 시를 통해 우리는 퇴계가 무이도가의 모티브를 인물기흥(人物奇興)의 산수시로 파악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一曲을 따라가서 漁船을 찾아가니	我從一曲覓漁船
天柱峯이 여전히 흐르는 내를 굽어보네	天柱依然瞰逝川
한결같이 참선미 읊고 간 뒤부터는	一自眞儒吟賞後

6)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16, 「答奇明彥」. “滉朋中, 嘗讀武夷志, 見當時諸人和武夷權歌甚多, 似未有深得先生意者. 又嘗見劉槩所刊行權歌詩註, 以九曲詩首尾, 爲學問入道次第, 竊恐先生本意不如是拘拘也.”

同亨의 風烟을 관리할 이 다시없네.

同亨無復管風烟

퇴계는 주희의 본의를 중시하고 또한 최대한으로 살리는 입장에서 시상을 전개한다. 원시의 만정봉의 잠긴 모습과 이 시의 천주봉의 의연한 자태는 서로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홍교의 단절을 극복하고자 하는 심정으로 진유眞儒의 출현을 회귀하고 있다. 제일곡第一曲의 천주봉天柱峯은 위魏나라 왕자건王子鵞이 득도得道한 곳이라 이르며, 동정同亭은 위진군魏眞君을 제사지내는 곳으로 충우 관沖佑觀 곁에 있다. 여기에서 참된 선비란 물론 주희를 가리키지만 세상을 바르게 만들고 백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순유醇儒나 통유通儒를 일컫는다.

二曲이라 선녀는 碧峰으로 화신하여  
천연스런 고운 맵시 세상에 뛰어났네.  
傾城의 薦枕일랑 넘보지 않으리니  
만겁의 구름 속에 閻闔門이 깊으다오.

二曲仙娥化碧峰  
天妍絕世靚脩容  
不應更覲傾城薦  
閻闔雲深一萬重

여색에 대한 경계를 이시의 주제로 보아도 별무리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 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색色을 멀리하라는 경계심을 넘어서는 시인의 억누를 수 없는 흥취를 감지할 수 있다. 퇴계는 주희의 ‘옥녀’를 ‘선아仙娥’로 대체하여, 옥녀와 무이산 신의 얽힌 설화를 바탕으로 옥녀봉의 모습을 그리면서 낭만적 정서에 빠져 들었다. ‘일만중一萬重’이 주는 깊이와 무게는 도저히 만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는 단절과 절망을 상징한다. 옥녀의 맵시있는 자태가 ‘경성傾城’이란 언어로 비유되어 더욱 절실하게 심금을 울린다. 여색을 소재로 삼아 이를 형상화하는 퇴계의 시적 감수성은 대단히 서정적이다.

三曲이라 달린 벼랑 큰 배가 꽃혔으니  
공중에서 날아왔다 당년 일 괴이하이  
濟川의 재목을 마침내 어찌 쓸지

三曲懸崖插巨船  
空飛須此怪當年  
濟川畢竟如何用

만겁 속에 부질 없이 귀신이 지켰구려

萬劫空煩鬼護憐

주희는 삼곡사에서 가학선架鶴船을 통해 인생의 허무한 감회를 노래한 반면, 퇴계는 낭떠러지에 걸려 있는 그것의 실용성에 착안을 둔다. 퇴계는 나를 건너는 도구으로써 가학선의 존재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개성적인 인식에 근거해 실용적인 관점에서 경관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제천濟川’은 은나라 고종高宗이 일찍이 부열傅說에게 한 말로, 원뿔은 큰 냇물을 건너려거든 그대를 사용하여 배와 노로 삼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4구의 ‘만겁萬劫’과 ‘공번空煩’은 인생의 덧없음을 자각하는 매체로 사용되어 시적 분위기를 불확실과 우울함으로 내몬다.

四曲이라 仙機巖에 밤조차 고요한데  
금닭은 깃을 치며 새벽을 알려주네.  
이 사이엔 또다시 풍류가 있고 말고  
양털 갖옷 걸쳐 입고 달뿔에 낚시하네.

四曲仙機靜夜巖  
金鷄唱曉羽毛毳  
此間更有風流在  
披得羊裘釣月潭

사곡에 있는 금계동은 도가의 전설이 어린 지명이다. 주희는 닭울음 소리 그치는 것으로 인적이 없는 적막감을 드러냈으나, 퇴계는 새벽에 우는 닭울음 소리를 부각시켜 청각적 이미지를 강화하였다. 이 시에서의 풍류風流란 현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심적 여유를 가리키며, 정서적으로는 산수간에 노니는 즐거움이다. 4구는 광무제光武帝와 엄광嚴光의 고사를 끌어와 이곳이 엄광 같은 은자隱者가 머물기에 가장 적합한 공간임을 암시한다. 주희의 사곡시가 도교에 얽힌 전설이 시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비해, 퇴계의 시는 달밤에 낚시질 하는 고사高士의 청적淸適한 풍류를 담고 있다.

五曲이라 당년에 산 깊이 들어가니	當年五曲入山深
大隱은 도리어 숲속에 숨어야지	大隱還須隱數林
거문고 손에 잡고 달밤에 타려는데	擬把瑤琴彈夜月
산 앞에 荷簣隱士 내마음을 알아 줄지	山前荷簣肯知心

이 시의 대은大隱은 주희를 가리키며 오곡五曲에 대은병이 있는 것을 연상한 것이다. 대은병은 존재로서의 의미를 인간과 공유하고 있다. 주희는 바로 대은병 아래에 무이정사武夷精舍를 짓고 강학에 전념하였다. 퇴계는 주희의 무이산 은거가 어떤 당위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한다. 선비의 출처는 시대를 잘못 만나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한다면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시에 경국제민의 의지를 펼치지 못한 데 대한 실의와 암울감은 나타나지 않는다. 후이後二句는 주희의 시구를 빌려 퇴계 자신의 의상意想을 드러냈는데,7) 하계은사荷簣隱士는 혼란한 세상을 피해 숨어 사는 은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마음’은 이윤伊尹이 견무岷嶽에 처하면서 요순의 도를 즐겼다는 그런 마음일 것이다. 자연에 완전히 동화한 시인의 내면적 자신감을 느낄 수 있다.

六曲이라 시냇굽이 푸른옥이 돌렸는데	六曲回環碧玉灣
신령은 어디가고 雲關만 남았느냐	靈蹤何許但雲關
지는 꽃 흐르는 물 깊은 곳을 거쳐오니	落花流水來深處
알궤라 仙家에는 일월조차 한가쿠나.	始覺仙家日月閑

‘신령한 자취’란 주희의 시에 서술된 ‘내내 사립문 닫혀있는 초가’에 사는 은자의 행적을 말한다. 시인의 관심이 은자의 처소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방문 목적이 은자를 만나기 위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은자는 어디에도 찾을 수

7) 『朱子大全』, “獨抱瑤琴過玉溪, 朗然清夜月明時. 祇今已是無心久, 却自山前荷簣知.”

없고 단지 구름만 계곡을 둘러싸서 더욱 한적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복사꽃이 계류에 떠내려 오는 것으로 보아 도화원이 그리 멀리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영중靈蹤’과 ‘운관雲關’과 ‘선가仙家’를 내세워 도가적 은일을 추상하는 흥취를 시상으로 삼았다. 비록 시적 경계는 도가사상의 영향이 감지된다고 하더라도 시인은 신선이 사는 선계를 동경하고 있지는 않다.

七曲이라 샷대 질러 한 여울 또 지나니  
天壺의 좋은 풍경 너무도 볼 만하이  
어찌면 流霞酒 한 잔을 마시고서  
싸늘한 학의 등에 飛仙을 옆에 끼고

七曲撈篙又一灘  
天壺奇勝最堪看  
何當喚取流霞酌  
醉挾飛仙鶴背寒

샷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어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상태를 묘사하였다. 칠곡의 물결이 거세고 빠름을 짐작케 한다. 무이구곡의 절경 가운데에서도 ‘기승奇勝’이라 표현한 천호암天壺巖을 보면서 감회에 젖었다. 천호암天壺巖은 칠곡七曲의 고루암鼓樓巖 곁에 있어 봉우리가 감돌고 그 안에 도원道院이 있으며 석천石泉이 극히 맑고 깨끗하다고 한다. 시인은 자신도 모르게 류하주流霞酒를 마시고 학을 타고 노니는 신선이 되어 황홀감에 빠져든다. 이시는 산수경관에 대한 미적 감동이 사색과 사유의 자유로움을 불러와 초세속적 선경에 대한 동경을 함축케 한다.

八曲이라 구름 병풍 물을 감싸 퍼졌는데  
날씬한 노 하나로 자유롭게 돌아드네  
하느님의 의사를 樓巖에서 알 만하이  
노는 사람 鼓動시켜 마침내 오게 하네

八曲雲屏護水開  
飄然一棹任旋迴  
樓巖可識天公意  
鼓得遊人究竟來

구름이 병풍처럼 물을 둘러싼 강물 사이로 배 한척이 시원하게 흘러간다. 시인은 ‘누암樓巖’이라는 바위의 이름을 통해 조물주의 의사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누암樓巖’은 ‘고루암鼓樓巖’으로 고자봉鼓子峯 앞에 있으며 그 형상이 북과 같은데 ‘고鼓’자의 뜻을 취하여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팔곡은 앞서의 여러 굽이보다 풍광이 수려하지 못하다고 한다. 세인이 살고 있는 제구곡에 가까운 만큼 가경佳景이 보다 적을 것은 당연하다. 퇴계는 이곳을 유람객이 찾는 일상적인 승경을 벗어나 참된 산수 감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한다.

九曲이라 산이 열려 사면이 특 트이고	九曲山開只曠然
사람 사는 촌락은 긴 내를 굽어보네.	人烟墟落俯長川
그대여 이 놀이 극처에 왔다 말 마소	勸君莫道斯遊極
묘한 곳은 아직도 한 하늘이 따로 있네.	妙處猶須別一天

퇴계는 『무이지』에 실린 도가시주釋詞註의 비평적 평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퇴계는 주희의 구곡십절九曲十絶이 당초에 학문차제學問次第의 의사意思가 없으나 주석자가 억지로 끌어다 붙여 구절마다 조리에 맞춘 것으로 모두 선생[주희]의 본뜻이 아니라고 했다. 다만 구곡九曲에 대해서는 본래 경치景致를 말한 것이지만 그 사이에 흥興에 의탁해서 뜻을 붙인 것이라고 이해했다.<sup>8)</sup> 그러나 구곡을 노래한 시에 대해서는 주석을 전부 부정하지는 않았다. 퇴계는 주희의 본의를 가늠하기 어려웠든지 주석에서 밝힌 뜻을 그대로 적용하여 짓기도 하였으며, <sup>9)</sup> 다시 원시의 애매모호한 면을 인정하여 초본初本을 개작하였다. 이 시의 전이구

8) 『退溪先生文集』卷13, 「答金成甫德鵬別紙」. “大抵九曲十絶, 竝初無學問次第意思, 而註者穿鑿附會, 節節牽合, 皆非先生本意. (中略) 獨於九曲, 與混後改之說不同者, 蓋自八曲自是遊人不上來以一句及此一絶, 雖亦本爲景致之語, 而其間不無託興寓意處.”

9) 초본 또는 구작이라 부르는 것으로 『退溪先生文集』卷13, 「答金成甫德鵬別紙」. “九曲來時却惘然, 眞源何許只斯川. 寧須雨露桑麻外, 更問山中一線天.”

前二句는 눈앞에 전개된 경물을 그대로 기술했으며, 후이구後二句는 이 경계를 극치라 말하지 말고 별도의 한 선경仙境을 찾아서 구경처로 삼을 것을 주문했다.

퇴계는 산수자연에 심취하여 사시四時의 풍경과 철따라 피는 꽃나무에까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2,000여의 방대한 시작을 남겼다. 퇴계는 자연 속에서 완전히 동화된 경지境地를 고귀하게 여겼으며, 산수를 인격처럼 살아 꿈틀대는 생명체로 생각하였다. 그의 시세계는 주희와 마찬가지로 현실주의적 미적 태도를 보이며 유가적 사실성에 주목한다. 구곡을 무릉도원이라 여기고 거기가 바로 별천지라 단정하였다. 평범한 농촌의 모습이 세속을 벗어나 삶의 이상이 실현되는 곳으로 인식한 것이다. 퇴계의 산수감상은 산수의 외형적 추구보다 감정 위주의 서술이 강조된다. 비록 그의 시 속에 선취仙趣가 풍부하게 담겨 있으나 이는 그의 선적仙的 취향일 뿐이지 도가사상과는 구별된다. 퇴계 또한 무이도가 원시의 분위기로 인해 신선세계를 선망하고 신선들을 흠모하기는 하지만 결코 유자의 정신은 망각하지 않았다. 즉 유가의 현실주의적 미의식에 기반하고 있으면서 도가의 이상주의적 미의식을 수용한 결과이다. 그의 시가 교조적인 성리학자들과 달리 낭만적 경향을 띠는 것은 퇴계의 당대 현실 인식이 매우 낙관적이기 때문이었다. 퇴계의 이 시는 실제적 경물의 사실적 묘사가 아니라, 꿈 속에서 만난 무이산을 배경으로 사상을 전개한다. 산수 경물을 주체적 내면의 세계와 직결시킴으로써 새로운 의상을 형상화한 것이다. 시적 정서는 유가적 사실성에 기초하면서도 은일자락의 정취와 선계에 대한 염원 등이 혼재되어 다소 낭만적이며 초현세적 분위기를 띤다. 도학적 이념이 작품 속에 녹아 있을지는 몰라도 도학적 이념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 3. 광뢰廣瀨 이야순李野淳(1755~1831)의 「도산구곡시陶山九曲詩」

안동은 조선 성리학의 최고봉인 퇴계 이황의 출생지로 오늘날에도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이다. 도산은 퇴계 은거의 중심 공간으로 예로부터 무이(武夷)라 일컬어왔다.<sup>10)</sup> 퇴계는 한평생 주희의 사상과 학문을 존신(尊信)했거니와 도산은 조선 주자학의 본산이요 퇴계학이 형성되고 구현된 현장인 것이다. 퇴계 사후 도산은 영남 중심의 남인(南人) 학자들 뿐만 아니라 당색을 초월하여 모든 학자들이 순례하는 성지가 되었다. 퇴계는 1565년에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을 지은 바 있지만, 도산구곡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도산십이곡」은 퇴계가 도산서당에서 후진을 양성할 때에 이학(理學)을 닦는 심지(心志)를 노래한 것으로, 독서강학(讀書講學)과 사색(思色)으로 나날을 보내던 그의 생활상이 잘 나타나 있다. 12수로 된 연시조(聯詩調)로 전6곡은 ‘언지(言志)’라 하여 때를 만나서 사물을 접할 때에 일어나는 감흥을 노래하고, 후6곡은 ‘언학(言學)’이라 하여 자신의 학문수덕(學問修德)의 실재를 노래하고 있다.<sup>11)</sup>

도산구곡이 언제 누구에 의해 설정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수촌(水村) 임방(任瑩)(1640~1724)의 시에, “도산구곡에는 대현(大賢)의 사우(祠宇)가 있다.”는 구절로 보아<sup>2)</sup> 18세기 초에 이미 도산구곡이라는 명칭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도산구곡의 설정은 도산도의 제작 과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1566년 명종(明宗)의 명에 의해 도산도가 제작되었고, 이후 1733년과 1792년에 도 영조와 정조의 명에 의해 도산도가 각각 제작되었다. 화본(畫本)에 의거하면

10) 李頤淳, 『後溪集』 卷2, 「遊陶山九曲敬次武夷權歌韻十首」.

11) 19세기에 이르면 少論系의 학자 姜必孝(1764~1848)에 의해 도산십이곡의 한역이 이루어진다. 도산십이곡 舊本은 다만 歌曲으로 聲은 있으나 詩가 없었다. 강필효는 퇴계를 景慕하는 심정에서 諺文으로 기록된 도산십이곡 印本을 가지고 송시열의 「高山九曲歌(翻文의 예를 좇아 永言에 의지하여 詞를 만들어 무이구곡 뒤에 붙였다(『海隱別稿』).

12) 任瑩, 『水村集』 卷4, 「別禮安宰尹衡仲夏教」.

당시 도산도는 청량에서 운암까지 구곡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13)</sup> 이이순(李爾淳, 1754~1832)의 도산구곡은, 그의 서술대로라면 시험삼아 가장 아름다운 구비에 나아가서 무이구곡의 예를 따라 분정(分定)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시험삼아’라는 말의 관용적 표현으로, 그가 실제적으로 도산구곡의 최초 설정자인 것을 증명한다. 다만 그의 구곡 명칭이 동시대인이나 후인들에게 그대로 수용되어 통용된 것은 아니었다. 그가 도산구곡의 이곡(二曲)으로 설정했던 ‘비암(鼻巖)’은 대부분의 다른 도산구곡 시기(詩歌)에서는 ‘오담(鰲潭)’으로 대체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4)</sup> 지금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도산구곡을 노래한 시가는 대략 20여 편 되는데 주로 퇴계학과 계열의 문집에 수록되어 전한다. 그러나 아직 간행되지 않은 문중 소장품의 유고가 상당수 남아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추가로 발굴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도산구곡 시가의 창작은 18세기 후반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sup>15)</sup> 퇴계

13) 李晚輿(1861~1904), 『吾家山誌』 凡例.

14) 도산구곡의 통상적인 제목은 1곡 雲巖寺, 2곡 月川曲, 3곡 鰲潭曲, 4곡 汾川曲, 5곡 瀾澗潭曲, 6곡 川沙曲, 7곡 丹沙曲, 8곡 孤山曲, 9곡 清涼曲이다. 趙星復은 「陶山十八曲」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陶山九曲」과 「陶山九曲以上九曲」으로 구분했는데, 「陶山九曲」으로 月川曲 鰲潭曲 汾川曲 石澗曲 瀾潭曲 鏡潭曲 廣瀨曲 川沙曲 丹砂曲이 설정되었고, 「陶山九曲以上九曲」으로는 白雲曲 彌川曲 景巖曲 寒粟潭曲 月明潭曲 孤山曲 清涼曲 穿川曲 潢池曲이 설정되었다. 蔡壽述(1783~1851)은 雲巖曲 孤山曲 清涼曲 대신에 石澗曲 鏡潭曲 廣瀨曲을 포함시켰다.

15) 晚谷 趙述道(1729~1803), 「李健之次武夷九曲韻又作陶山九曲詩要余和之次韻却寄」; 後溪 李爾淳(1754~1832), 「遊陶山九曲敬次武夷權歌韻十首」; 廣瀨 李野淳(1755~1831), 「陶山九曲」; 琴坡 李鼎秉(1759~1834), 「陶山九曲敬次武夷權歌韻」; 蒼廬 李鼎基(1759~1836), 「陶山九曲」; 竹塢 河範運(1760~1834), 「謹步武夷權歌韻作三山九曲奉呈漱亭參奉李丈案下以備吾嶺故事」; 下庵 李宗休(1761~1832), 「漱石主人李健之次武夷九曲韻仍歎玉山退溪陶山九曲要余追和忘拙步呈」; 陶窩 申鼎周(1764~1827), 「陶山九曲」; 素隱 柳炳文(1766~1826), 「陶山九曲武夷權歌韻和呈李健之」; 霞溪 李家淳(1768~1844), 「陶山九曲」; 匱窩 崔昇羽(1770~1841), 「敬次陶山九曲韻」; 鶴坡 趙星復(1772~

가학(家學)의 중심적 계승자라 할 수 있는 광뢰(廣瀨) 이야순(李野淳)(1755~1831)이 주도하였다. 그는 퇴계의 학문을 충실하게 조술(祖述)하고 그 지취를 빈틈없이 정리하고자 한 인물로, 당대의 거유 이상정(李象靖)(1710~1781)과 김종덕(金宗德)(1724~1797)을 사사(師事)하였다. 그는 평생동안 퇴계 문집을 연구하였던 바, 19세기 초반 퇴계학의 전개와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우 주목되는 학자다.

광뢰(廣瀨) 이야순(李野淳)(1755~1831)의 도산구곡(陶山九曲) 시는 아래와 같다.

錦繡와 琉璃가 이미 炳靈하니	錦繡琉璃已炳靈
山은 더욱 巖巖하고 물은 더욱 맑네	山增巖巖水增清
大隱屏과 서로 멀다 말하지 마소	休云大隱屏相遠
千載에 노젓는 소리 함께 돌아가리	千載同歸一櫂聲

1구의 금수(錦繡)는 산빛을 말하고 유리(琉璃)는 물빛을 비유한 것이며, 2구는 퇴계가 도산을 찾아 읊은 감회를 인용하였다.<sup>16)</sup> 영기가 깃든 도산의 수려하고 조화로운 산수를 통해서 퇴계의 위대한 학덕을 선명하게 부각시켰다. 도산 일대 만큼 대현(大賢)의 학문 강학처로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은 매우 드물다. 비록 대은병 아래에 위치한 무이정사와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1830), 「陶山九曲次韻·壽靜齋 柳鼎文(1782~1839), 「伏次廣瀨丈寄示陶山權歌韻·梅村 琴瑟宗述(1783~1851), 「謹次廣瀨李丈陶山九曲韻·慕亭 李著秀(1790~1848) 「謹次陶山九曲歌·慕亭 李著秀(1790~1848), 「次廣瀨李丈續陶山九曲歌·東林 柳致始(1800~1862), 「次漱石亭二九曲韻·安愚 金永斗(1857~1944), 「敬次陶山九曲·晴溪 崔東翼(1868~1912), 「擬陶山九曲用武夷權歌韻·玄庄世稿(止窩遺稿), 「陶山九曲.

16) 『退溪先生文集』(外集)卷1, 「余病去陶山, 秋涉冬矣. 今察日溫, 與而精來尋, 頗有義之俛仰陳迹之歎, 得一絕以示而精云. “病來驅我入溪莊, 雲掩山房鳥下堂. 今日與君來寓日, 山增巖巖水洋洋.”

주희와 퇴계의 삶이 시간적으로 천여년의 선후가 있지만, 학문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러한 시공간을 뛰어넘어 궤를 같이한다는 것이다. ‘일도-權’는 퇴계의 ‘일도갱가구곡성-權贊歌九曲聲’을 차용한 것으로 주희와 퇴계를 동일시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사에서 이아순은 향후 화자가 노래한 것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一曲이라 바위 구름 배를 당기는 듯  
예안의 君子라면 烏川을 말한다네  
丹楓과 落日을 누가 이어 읊을까  
한줄기 푸른 연기 蕭寺에 피어나네

一曲巖雲若挽船  
魯多君子說烏川  
丹楓落日吟誰續  
蕭寺靑留一點烟

운암은 예안현 남쪽 5리, 도산 남쪽 15리에 위치하는데 도산구곡의 수구水口 역할을 한다. 광산 김씨 예안파 집성촌인 외내마을과 인접한 곳이다. 외내마을은 군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하여 군자리라 불리워졌는데 퇴계에게 급문한 학자들이 많았다. 퇴계는 이들과 더불어 운암사雲巖寺에 노닐 적이 있다.<sup>17)</sup> 3구는 당시 퇴계가 지어서 제자들에게 보여준 샛구를 인용한 것으로 퇴계의 학문이 지속적으로 계승되기를 바라고 있다. 4구의 ‘한점 푸른 연기’는 운암사의 소산한 분위기를 시각적 이미지로 전달하고 있다.

二曲이라 芙蓉峯 옥처럼 솟아  
風月을 열어서 시내 가득 비치네  
通郊 十里길 淵源이 광활하니

二曲芙蓉削玉峯  
爲開風月滿川容  
通郊十里淵源闊

17) 『退溪先生文集』卷4, 「遊雲巖寺, 示金彥遇愼仲惇敍琴夾之壘之趙士敬諸人. “江亭昔望雲藏岳, 山寺今登岳出雲. 眼豁天低山共遠, 秋高野曠水平分. 閒開靜室思論易, 健倒清尊欲討文. 落日丹楓吟更好, 歸時林影月紛紛.”

雲烟이 한 겹 막힌거 말하지 마소

莫道雲烟隔一重

월천(月川)은 비암(鼻巖) 동쪽에서 89리 떨어진 부용봉 아래에 위치하는데 퇴계의 고제(高弟) 조목(趙穆)(1524~1605)이 살았다. 퇴계는 예안고을의 산수를 언급할 때 반드시 월천을 으뜸으로 꼽았다. 퇴계는 1562년 7월 기망(既望)에 적벽(赤壁)의 고사를 본받아 문인들과 월천곡(月川曲)의 풍월담(風月潭)에서 노닐러다가 큰비를 만나 실행하지 못한 적도 있었다.<sup>18)</sup> 조목은 퇴계의 문인이 된 후 일생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스승을 모셨고, 퇴계 사후에는 문집의 편간, 사원(祠院)의 건립 및 봉안 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인물이다. 그는 퇴계의 수제자였으나 제자를 길러내지 못해 하나의 학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퇴계학의 광활한 연원 가운데 한겹의 구름과 안개가 끼었다는 것은 월천의 학문이 단절됨을 비유한 것이다.

三曲이라 못의 자라 戴船을 지어  
吾東의 易學이 언제 시작되었나?  
積陰이 한참 오래 乾坤이 열리니  
방이름 精一齋 달이 더욱 고와라.

三曲潭鰲爲戴船  
吾東易學訪何年  
積陰已久乾坤闢  
精一齋中月更憐

오담(鰲潭)은 도산 아래 5리 쯤 되는데 역동서원(易東書院)이 위치한 곳이다. 역동서원은 퇴계의 발의로 우탁(禹倬)(1263~1342)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었는데 퇴계는 1570년 이곳에 이르러 문인들과 『심경』을 강론했다. 우탁

18) 『退溪先生年譜』卷2. 이때 지은 시는 『退溪先生文集』卷3에 수록되어 있는데 시제는 「七月既望, 期與趙士敬金彥遇愼仲惇敎琴夾之間遠諸人, 泛舟風月潭. 前一日大雨水, 不果會. 戲吟二絕, 呈諸友一笑」이다.

은 새로운 유학인 정주학(程朱學)을 수용해서 이를 깊이 연구해 후학들에게 전해주었다. 그는 역학(易學)에 더욱 조예가 깊어 복서(卜筮)가 맞지 않음이 없다고 기록될 만큼 아주 뛰어난 역학자였다. 음침한 기운을 뜻하는 ‘적음(積陰)은 퇴계의 『역동서원기(易東書院記)』에서 따온 것이며,<sup>19)</sup> ‘건곤벽(乾坤闢)은 『역동서원시제군(易東書院示諸君)』시의 구절에서 인용했다.<sup>20)</sup> 3구는 음기(陰氣)가 극에 달한 순음(純陰)을 지나 동지(冬至)가 되면 양(陽)의 기운이 처음으로 생겨나 듯 만물이 생기를 회복하게 됨을 비유한다. ‘정일재(精齋)’는 역동서원 명교당(明教堂)의 좌익실(左翼室)의 이름으로, 정밀하게 관찰하여, 올바른 마음을 전일(專)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四曲이라 귀먹바위 물이 부딪히고  
 자옥한 바위 구름 늘어져 푸르네  
 농암에 거하시던 仙伯은 어데 있소  
 복사꽃은 지고 달빛 못을 비추네

四曲偏龔激水巖  
 巖雲重鎖碧氤氳  
 巖居仙伯今何處  
 花落蟠桃月在潭

분천(汾川)은 월천(月川) 서북 5리쯤에 있는데 농암(龔巖) 이현보(李賢輔)(1467~1555)의 정관(亭館)이 있었다. 분천은 우리말로 ‘부내라 부르며 농암은 “정승벼슬도 이 강산과 바꿀 수 없다”고 했다. 분천의 상징은 귀먹거리 바위라 부르는 농암이다. 이현보는 이 바위에서 자신의 호를 취하여 ‘염퇴(恬退)’의 삶을 누렸다. ‘반도(蟠桃)’는 이 시에서 임강사(臨江寺)의 곁에 위치한 반도단(蟠桃壇)을 가리키는데

19) 『退溪先生文集』卷42, 「易東書院記」. “竊嘗惟念, 祭酒先生生當麗氏之末, 胡元制命, 六合霧塞, 天下之無道極矣. 上距程朱之世, 且一二百年之久而後, 其書始至于東, 譬如積陰之下, 陽德闢發而將亨.”

20) 『退溪先生文集』卷5, 續內集, 「易東書院示諸君」(三首). “儒館經營洛水邊, 幸同今日會群賢. 初來易道乾坤闢, 漸賁文獻日月懸. 好待後人能契發, 恭聞此學在精專. 莫將外慕相撓奪, 無價明珠得自淵.”

농암은 퇴계를 초청하여 이곳에서 꽃을 감상하기도 하였다. 강호에서의 농암의 생활은 지상地上의 신선에 비견되어 퇴계는 농암을 노선백老仙伯이라 일컬었다.<sup>21)</sup>

五曲이라 濯纒潭 깊고 깊어서	五曲纒潭不測深
채우고 남은 물결 千林을 적시네	涵滄餘波遍千林
못물이 이처럼 끊임없이 흐르듯	如斯有水源源處
古人을 생각하니 내 마음과 맞네	思古人惟獲我心

5곡은 도산서당이 위치한 곳으로 퇴계의 이상이 실현되던 공간이자 도산구곡의 중심을 이룬다. 서당 앞을 흐르는 낙천洛川은, 맑고 깊은 쏘[潭]을 이루어 흘러넘쳐 흐르는 형상을 이루고 있다. 「도산잡영병기陶山雜詠并記」에는 도산일대의 경관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거니와 퇴계는 특히 탁영담濯纒潭의 운치를 매우 좋아해서 이곳에서 뱃놀이를 즐겼다. 도산구곡의 5곡으로 탁영담이 설정된 것은 주희의 무이정사가 무이구곡의 5곡에 위치한 것을 고려했을 터이다. 「탁영濯纒은 갖근을 씻는다는 말로, 진속塵俗을 초탈하여 고결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거나 시세時勢에 따라 행장行藏과 진퇴進退를 적당히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후이구後二句는 도맥道脈이 면면히 이어져 단절되지 않은 것을 비유했는데 퇴계의 「자찬묘갈명自撰墓碣銘」에 나오는 “산은 높이 솟아 있고, 물은 끊임없이 흐르는데”, “내 고인을 생각하니, 실로 내 마음과 맞는구나.”라는 구절을 인용하였다.”<sup>22)</sup>

21) 『退溪先生文集』卷1, 「李先生來臨寒棲」. “清溪西畔結茅齋, 俗客何曾款戶開. 頓荷山南老仙伯, 肩輿穿得萬花來.”; 『退溪先生文集』卷2, 「鶴巖先生來臨溪堂」. “溪西茅屋憶前年, 溪北今年又卜遷. 第一光華老仙伯, 年年臨到萬花邊.”

22) 『退溪先生年譜』卷3, 「墓碣銘」先生自銘, 高峯奇大升敘其後, “生而大癡, 壯而多疾. 中何嗜學, 晚何叨爵. 學求猶遜, 爵辭愈嬰. 進行之路, 退藏之貞. 深慙國恩, 竄畏聖言. 有山

六曲이라 숲속 터 玉灣을 안고  
 儵魚랑 白鳥와 사이 좋게 지내네  
 霞明洞에 늦은 꽃 더욱 어여뻐  
 한자락 서쪽 골을 차지했었지

六曲林墟抱玉灣  
 儵魚白鳥好相關  
 更憐花晚霞明處  
 西望曾專一壑間

천사곡(仙曲)은 탁영담 동서쪽 5리에 위치하는데 우리말로로는 ‘내살미’라 부른다.<sup>23)</sup> 천사 가에 지리한 하명동(霞明洞) 자하봉(紫霞峯)은 퇴계가 처음 복거한 곳이기도 하다.<sup>24)</sup> 이야순은 이를 기념하여 자하산을 오가산(吾家山)이라 부르고 자하산의 퇴계 시문을 모아 첩을 만들었다. 2구句의 조어(儵魚와 백조(白鳥)는 속세와는 무관한 탈속(脫俗)한 경계를 상징하는데 신수에 심취되어 자연과 완전히 융화된 퇴계의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 4구의 ‘전일학(專一壑)은 왕안석(王安石)이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나 세상 일을 잊고 지내던 시절에 지은 시에 전거를 두는데 늘그막에 은거를 꿈꾸는 선비들의 염원이 서려 있는 말이다.<sup>25)</sup>

七曲이라 여울이 한줄기 돌아 흘러  
 葛仙臺와 高世臺, 다시금 돌아보네  
 丹砂가 만섬이라, 하늘이 감춘 보배

七曲縈廻一水灘  
 葛仙高世更回看  
 丹砂萬斛天藏寶

崑崙, 有水源源. 娑娑初服, 脫略衆訕. 我懷伊阻, 我佩誰玩. 我思故人, 實獲我心. 寧知來世, 不獲今兮. 憂中有樂, 樂中有憂. 乘化歸盡, 復何求兮."

23) 『退溪先生文集』卷1, 「戲作七臺三曲詩」. “月瀾庵近山臨水, 而斷如臺形者凡七. 水繞山成曲者凡三.” 七臺는 招隱臺 月瀾臺 考槃臺 凝思臺 朗詠臺 御風臺 凌雲臺이고, 三曲은 石潭曲 川沙曲 丹砂曲이다.

24) 『退溪先生年譜』卷1.

25) 荊公退去鍾山有詩云: 穰侯老擅關中事, 長恐諸侯客子來. 我亦暮年專一壑, 每逢車馬便驚猜.

靑壁에 구름 피어 차갑게 비치네

靑壁雲生相映寒

단사는 예안현 동쪽 20리 쯤에 위치하는데 깎아지른 듯한 석벽이 강가에서 절경을 연출하는 곳이다. 석벽을 단사벽(丹砂壁)이라 부르며 그 남쪽에 왕모성산(王母城山)이 있고 기슭에 갈선대(葛仙臺)와 고세대(高世臺)가 자리잡고 있다.<sup>26)</sup> ‘고세(高世)’는 「자지가(紫芝歌)」에서 따온 것이고,<sup>27)</sup> ‘갈선(葛仙)’은 연산(鉛山) 현산(縣山)에서 수련했던 오뎃의 갈현(葛玄)에서 유래한다.<sup>28)</sup> 이 시의 구성에서 상이구(上二句)는 무이도가의 7곡시 형식과 유사한 면이 발견된다. 주희의 ‘七曲移船上碧灘 隱屏仙掌更回看’ 시구를 염두에 두고 시상을 전개했음이 분명하다. 이아순의 도산구곡 가운데 비교적 도가적인 취향이 강하게 묻어나는데 이것은 ‘갈선’·‘고세’·‘단사’ 등의 언어가 지닌 탈속적인 의미 때문일 것이다.

八曲이라 孤山에 玉鏡이 펼쳐서  
惺惺한 心法이 이곳에 맴도네  
노래를 멈추고 蒼厓에 묻나니  
시짓고 노닐던 일 기억하는가?

八曲山孤玉鏡開  
惺惺心法此沿洄  
停歌爲向蒼厓問  
能記題詩杖屨來

고산(孤山)은 청량산의 축융봉(祝融峯) 서쪽 산기슭으로 예안현 단사 북쪽 10리에 있다. 퇴계의 문인 금난수(琴蘭秀)(1530~1604)의 별업(別業)이 있는 곳으로 도산구

26) 『退溪先生文集』卷1, 「葛仙臺」. “丹砂南壁葛仙臺, 百面雲山一水迴. 若使仙翁今可見, 願供薪水乞靈來”; 「高世臺」. “碧嶂丹崖削玉成, 溪流曲曲抱山清. 臺名莫向癡人說, 怕認商山作采榮.”

27) 「紫芝歌」. “莫莫高山, 深谷邇池. 曄曄紫芝, 可以療飢. 唐虞世遠, 吾將何歸.”

28) 『退溪先生文集攷證』卷1. 「葛仙」이 葛洪에서 유래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葛洪은 鍊丹을 해서 수명을 늘려 불 목적으로, 交趾에서 丹砂가 나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자원해서 句漏의 현령이 되었던 인물이다.

곡 중에서도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퇴계는 제자 금난수의 호를 ‘성재<sup>性齋</sup>’라고 지어주었으며 이곳의 풍광을 즐겨서 시를 남기기도 하였다.<sup>29)</sup> 상이구<sup>上二句</sup>는 거울같이 깨끗한 고산의 이미지에서 퇴계 학문체계의 핵심인 성리학의 경사상<sup>敬思想</sup>을 연상하고, 아올러 고산의 주인이던 금난수의 인품을 되새기고 있다.<sup>30)</sup> 하이구<sup>下二句</sup>는 퇴계가 고산을 노닐면서 석벽에 시를 적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퇴계에 대한 강한 그리움을 표현하였다.

九曲이라 山 깊어 형세가 絶然한데  
그 누가 산속에 시내 있는 줄 알랴.  
桃花 물결 알려질까 두려운지라  
沙鷗에게 분부하여 洞天을 지키네.

九曲山深勢絶然  
山中誰認有斯川  
人間可怕桃花浪  
分付沙鷗護洞天

청량산은 도산구곡의 극치로 유람이 끝나는 곳이다. 퇴계는 산사를 찾아 독서하거나 유산을 즐겼는데 그가 가장 즐겨 찾아 노닐었던 산이 청량산으로 도산에서 멀지 않다. 퇴계는 청량산에서 독서하는 것과 산에서 노니는 것이 서로 같은 점을 들어 독서와 산놀이를 일치시키기도 했다. 1구의 ‘절연<sup>絶然</sup>’은 청량산이 속세와는 동떨어진 공간이자 경관이 기절할 것을 의미하는 중의적<sup>重</sup>義의 언어다. 작지는 청량산을 이상향으로 인식하여 도연명<sup>陶淵明</sup>의 「도화원기<sup>桃花源記</sup>」에서 시적 소재를 찾았다.

이아순의 도산구곡 시는 주희의 「무이도가」를 차운하면서, 퇴계의 「차구곡

29) 『退溪先生文集』卷2, 「書孤山石壁」. “日洞主人琴氏子, 隔水呼問今在否. 耕夫揮手語不聞, 悵望雲山獨坐久.”

30) 『退溪先生文集』卷7, 「進聖學十圖筭」. “或曰, 敬若何用力耶. 朱子曰, 程子嘗以主一無適言之. 嘗以整齊嚴肅言之. 門人謝氏之說, 則有所謂常惺惺法者焉. 尹氏之說, 則有其心收斂, 不容一物者焉云云. 敬者, 一心之主宰, 而萬事之本根也.”

도가운(次九曲權嶺)의 의상을 기초로 도산일대의 산수의 이름다움을 묘사하였다. 다만 도산구곡 시가의 창작의 이면에는 퇴계의 학통을 계승하고 이를 정립하려는 의지가 들어 있다. 수사적 측면에서는 집구시(集句詩)에 가까울 정도로 퇴계의 시구를 인용하였으며, 문학사상적 측면에서는 신선의 세계를 동경하는 선적 취향이 강하게 노정되었다. 이아순이 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선시대 도학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문장을 학문의 여사(餘事)로 여겼으며 도본문말(道本文末)의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문학을 인간의 성정을 교화하는 계몽적 성격으로 파악했으며 이러한 관점은 도산구곡 시가에서도 충분히 감지된다. 그의 시적 수준은 금시술(琴詩述)(1783~1851)의 평에 의하면, 구름이 가고 물이 흐르는 듯하여 마치 구상하지도 않았어도 전이하고 홍창(洪響)하여 저절로 자연스러운 법칙이 있었다고 한다.<sup>31)</sup> 시적 경계가 상당히 노숙함을 지적한 말이다. 그는 퇴계와 마찬가지로 경(敬)을 통한 진락(眞樂)을 추구하면서도 심미적인 체험을 중시하여 문학과 도학이 하나되는 그런 경지를 추구하였다.

---

31) 琴詩述 『梅村文集』卷, 「通訓大夫行掌樂院主簿廣瀨先生李公行狀」, “其詩則少時諸作, 字鍊句琢, 如聯珠璧疊璧, 晚年謾興, 如雲行水流, 若不構思而典雅洪響, 自有天則.”

#### 4. 도산구곡 시가 창작의 함의<sup>舍意</sup>

도산은 퇴계의 출생지이자 은거의 생활공간으로, 자연환경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다. 퇴계에게 있어서는 학문적 열정과 산수미의 이상을 실현하는 현실의 체험 공간이었다. 지금도 도산서당에는 퇴계의 유품과 지취가 완연히 남아 있다. 도산구곡의 설정과 시가 창작의 주역은 퇴계를 절대적으로 숭상하고 신봉하는 영남지역 사림들이다. 이들은 도산을 조선 성리학의 본고장이자 학문의 성지로 여겼다. 퇴계의 도산 은거는 치세의 방편에 대한 논의에서 인성의 본질과 근원을 탐구하며 자연의 질서와 이법을 연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순수학문의 경향은 퇴계학과를 중심으로 뚜렷하게 계승되어 학문적 전통으로서 학통을 형성하였다.

도산구곡의 설정은 정조의 명에 의해 「도산도<sup>陶山圖</sup>」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사림의 공론과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도산구곡 9개의 명칭은 모두 퇴계의 시문이나 관련 유적지에서 따온 것으로 제목마다 퇴계의 사상과 의식 등이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도산구곡 시가의 창도와 보급은 실로 이아순의 경주 방문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아순은 1823년 4월에 양동<sup>良洞</sup>에 들러 이정엄<sup>李鼎穰</sup> 이악상<sup>李岳祥</sup> 등 제우<sup>諸友</sup>와 더불어 옥산을 유람하였다. 이때 무이구곡과 도산구곡을 언급하다가 옥산구곡의 품정<sup>品定</sup>을 제안하고 옥산의 굽이를 따라 구곡의 이름을 정하였다.<sup>32)</sup> 이아순은 이후 무이구곡은<sup>武夷九曲韻</sup>에 차운을 하고, 이어서 옥산<sup>玉山</sup>퇴계<sup>退溪</sup>도산구곡<sup>陶山九曲</sup> 시를 지어 조술<sup>趙述道</sup>이중휴<sup>李宗休</sup> 등 지인들에게 적극적인 화운을 요청하였다. 조성복<sup>趙星復</sup>

32) 李鼎基, 『蒼廬文集』卷1. “及到松壇, 南廬自彥已先待. 於此, 俱下坐打話, 健之間及武夷九曲, 而曰陶山有九曲, 玉山獨不可無九曲. 蓋爲之品定乎. 僉曰, 諾. 遂與邇上逐曲, 排準如數, 聞風來者, 亦不下約中人. 使年少, 各書一通, 臨罷, 約歸賦各寄.”

은 이아순이 조술도(趙述道)에게 보낸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아 도산십팔곡운(陶山十八曲韻)에 차운했으며, 이시수(李著秀)는 소문을 전해 듣고 옥산도산퇴계구곡 시에 차운하기도 하였다. 이아순의 도산옥산구곡 시는 진주지역에 사는 하범운(河範運)에 의해 덕산구곡(德山九曲)이 보태져 삼산구곡(三山九曲) 시로 변형되기도 하였다. 하범운이 1823년 겨울에 문집을 교감하는 일로 이아순을 방문하자, 이아순이 도산과 옥산의 두 구곡제목(九曲題目)을 써주며 화운을 요청한 결과였다. 하범운은 삼산(三山)에 구곡(九曲)이 있는 것은 도학(道學) 원류(源流)의 성대함이 우리 영남(嶺南)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인식하였다.<sup>33)</sup> 양동(良洞) 출신의 창려(蒼廬) 이정기(李鼎基)는 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옥산양동십팔곡(玉山良洞十八曲) 시의 화운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구곡시의 창작과 주문을 통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

도산구곡은 퇴계학파의 ‘무이(武夷)를 상상하고 학주자(學朱子)하는 체험적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도산구곡 시가는 주희의 「무이도가」를 차운하여 도산의 자연 경물 속에 내재된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시적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그 창작 정신은 현실공간에 대한 경험적 서정을 중요시하는 사실(寫實)의 정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면에는 퇴계의 학문적 이상과 그 계승을 형상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산이라는 실경 산수에 대한 현장적 체험은 퇴계의 「무이도가」 차운시와는 구별되는 산수 유람의 또 다른 흥취가 존재한다. 산수의 특징을 섬세히 묘사하면서 도산이 무이산에 못지 않다는 자부심을 토로했다. 또한 여느 구곡시와 마찬가지로 유자(儒者)의 깊은 성찰로부터 비롯되는 정신적 경계를 지향함으로써 자연 속에서 도를 추구하는 유가의 이상적 삶을 강조하였다. 이는 성리학의 격물과 연관지을 수 있으며, 문학과 수양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여 정심(正心)의 문학론으

33) 河範運, 『竹塢先生文集』卷1.

로 도출되었다.

구곡시는 주희를 기리는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창작된다.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 16세기에 퇴계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전승되기 시작한다. 이후 정계에서 소외된 남인 계열에서는 도산구곡을 설정하고 시가를 창작하면서 자신들의 도맥(道脈)을 드러낸다. 18세기 이래 퇴계학파의 정치적 좌절과 병호시비(屏虎是非) 같은 향촌의 대립적 상황 속에서 그 결속의 도모를 위해서도 도맥의 확립 작업이 필요하였다. 자신들의 학문이 도덕적 순수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통성을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아순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도산구곡 시가의 창작은 바로 주희와 퇴계의 학맥을 계승하고자 하는 18세기 후반 퇴계학파의 이러한 도통의식이 잠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시문학의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회화 방면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퇴계를 기리는 「도산도」와 주희를 기리는 「무이구곡도」가 함께 제작되어 감상되었다.<sup>34)</sup> 의령의 선비 안덕문(安德文, 1747~1811)은 평생 회재(晦齋) 퇴계(退溪) 남명(南冥)의 학문과 행실을 흠모해 화공에게 세 선현을 모신 옥산(玉山)도산(陶山)덕산서원(德山書院)을 그려서 벽에 걸어놓고 이를 본받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삼산도지(三山圖誌)』라는 책을 손수 엮어 회재 퇴계남명이 중국의 공자나 주자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흠모의 마음을 나타내었다.<sup>35)</sup>

요컨대 「도산구곡」 창작의 이면에는 단순히 퇴계를 기리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퇴계의 학맥을 잇는 후학들의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언어적 서술 이상으로 도학적 전통 및 도통 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를 드러내려는 행위였다. 즉 도산구곡 시가의 창작은 영남의 퇴계학파 사람들이

34) 『퇴계이황』(한국국학진흥원·예술의 전당, 2001) 퇴계탄신 500주년 특별전시회.

35) 安德文, 『宜庵先生文集』卷5, 「題三山圖障子」.

자신들의 학문적 정통성을 확고히 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임을 의미한다.

## 5. 맺음말

조선의 학자들은 이미 16세기부터 주희의 무이구곡 경영과 「무이도가」의 창작을 따라 구곡을 경영하고 구곡가를 창작하였다. 밀양密陽 무이천武夷川의 명미明媚한 풍광을 묘사한 박귀원朴龜元(1442~1506)의 「고사구곡姑射九曲」은 「무이도가」를 차운한 시로써 지금까지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거니와, 퇴계의 「무이도가」 차운은 특히 조선조 사립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수많은 방작仿作을 낳게 하였고 퇴계학과 학자들이 도산구곡 시가를 창작하는 전통을 마련하게 하였다. 「무이도가」와 「도산구곡」은 한중 문학교류와 그 영향 및 의상意象의 변용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작품들이다. 퇴계는 한시로 「무이도가」를 화운하고 또 한글로 「도산십이곡」을 지어 독창적 산수문학의 경계를 하였으며 한국시가사에서 전통적 맥락을 형성하였다. 퇴계는 도가 주석釋의 도학적 견해에 대해 비판하면서 시는 반드시 시인의 본래 창작의 도대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선진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도산은 퇴계 유학사상의 구현의 장이요, 후학들에 의해 그 계승의 의지를 공고히 하는 성지로 인식되었다. 도산은 산수의 조화미, 문화유산의 다양성, 인물의 역사적 영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한국 최고의 문화경관이다. 도산구곡 시가는 주희의 「무이도가」의 운을 빌려 창작되긴 했으나 문학작품의 지리적 배경이 다르고 묘사되는 시적 세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다. 즉 상상의 공간이 아니라 도산이라는 특정공간을 지리적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작품이 지닌 사실성과 독창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 도산구곡 시의 창작과 옥산구곡玉山九曲의 설정은 도학연원道學淵源의 계승적 측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퇴계의 「무이도가」 수용과 퇴계 후학들의 도산구곡 창작은 주희로부터 퇴계에게 이어지는 도학(道學)의 정통성을 의미하며, 퇴계학과 인사들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보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특히 도산구곡의 설정과 시가 창작은 학통을 계승하려는 의지의 시가(詩歌) 문학적 표출이자, 퇴계라는 위대한 인물에 대한 존경심의 구곡문화 전승의 표현이다. 선현의 참된 정신이 깃들고 자연과 융화된 인생관이 담긴 구곡문화의 합리적 계승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대립적 구도를 지향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욱 화두로 떠오른다.